



프랑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①

발코니 확장으로 생활의 여유를

- 건물의 배치계획도 재검토하여 경관을 향상



개·보수하자마자 촬영한 고층동. 발코니 폭을 이전의 두배에 성장하는 약 1.5m로 넓혀서 반 옥외의 이 공간에서 식사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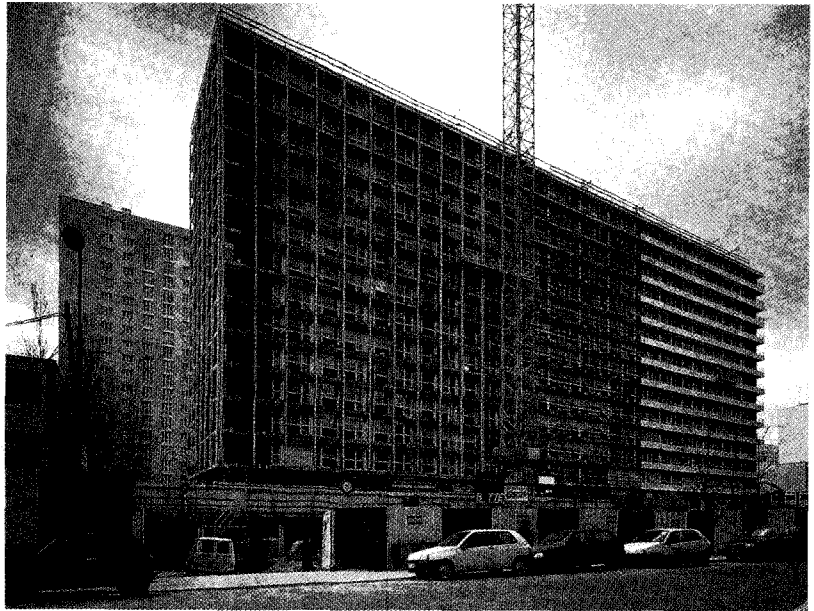
차양막이로 발코니를 화려하게 채색한다. 각 가구의 주민들은 발코니에 꽃을 장식하거나 파라솔을 설치한다. 새롭게 단장된 발코니를 보면서 주민들은 생활의 여유가 생긴 듯 즐거운 모습이다.

1964년에 완성된 파리 시내의 한 공동주택을 개·보수하고 부지내의 건물배치도 재검토하였다. 설계는 공동주택 전문가인 크리스찬 드 폴잔파르크씨가 맡았다. 개·보수의 주 목적은 각 가구의 기능 향상과 부

지내의 환경개선이다. 주거동은 단열성을 높이기 위해 외벽을 개·보수, 더불어 발코니의 폭을 2배 정도로 확장하였다. 발코니에 테이블을 놓고 식사가 가능할 정도가 여유가 생겼다.

발코니를 화려하게 채색하는 차양막의 색깔은 흰색·황색·베이지색. 색깔 선정은 각 가구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한다. 발코니 폭을 넓힌 것만으로도 주민들은 “생활공간에 여유가 생겼다”며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건물 배치도 재검토 하였다. 남측 광장과 접해있는 건물은 공공건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기존의 주거동을 헐어버리고 아티스트들의 아틀리에 등이 입주할 건물을 지었다. 그렇게 하므로써 한편으로는 건물로 둘러싸인 부지 안쪽이 사생활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계획했다. 부지 동쪽 길가에 두개의 건물을 신설하여 헐어버린 주거동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집과 상업시설을 수용했다. <外誌에서>



리모델링 공사모습. 외벽을 단열 개·보수하는 것 외에 수지재의 이중창 새시를 설치했다. 여기에 병행하여 발코니 확장도 계획했다.

이용자의 목소리

◆ 식사 및 일관육을 하기에도 충분

91년부터 살고 있다. 넓어진 발코니에서 여름에는 식사를 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따뜻한 햇볕을 쬐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남편이 일관계로 출장을 갈 경우가 생기더라도 가능한 남고 싶다. (여성)

◆ 탈 토끼 오두막

이곳에서 산지 20년이 넘었다. 전에는 토끼 오두막 같던 곳이 발코니가 넓어져 꽤 여유가 있다. 햇살이 강할 때에는 차양막이 중요한 보배다. 실비면에서 거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남성)

◆ 다용도로 사용

여름에는 많은 주민이 발코니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꽃을 장식하거나 물건을 두는 장소로 사용하기도 하며 저마다 각각의 용도를 궁리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관리인)



발코니는 편측지지 대들보로 보강한 뒤에 확장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은 개·보수에 맞춰 신설한 새로운 주거동. 이 건물 넘어에 개·보수한 동이 보일 듯 말듯하게 배치되어 부지의 안쪽 길이감을 강조하고 있다.



부지 남측과 마주하는 광장에서 바라 본 전경. 정면에 보이는 건물에는 아티스트의 아틀리에와 오피스가 들어섰다. 원래는 공동주택이 있던 장소였지만 광장과 마주한 공공적인 위치를 고려하여 공공적인 색깔에 맞는 시설로 변경하여 다시 지었다. 이전에 여기에 살던 주민들은 왼쪽 구석에 보이는 2개동으로 분산시켰다.

■ 건축개요

명 칭 : 내쇼날가의 공동주택

주소지 : 프랑스 파리시 내쇼날가

주용도 : 공동주택, 오피스

발주자 : RIVP

설계자 : 크리스찬·드·폴잔파르크(건축)

시공자 : SIC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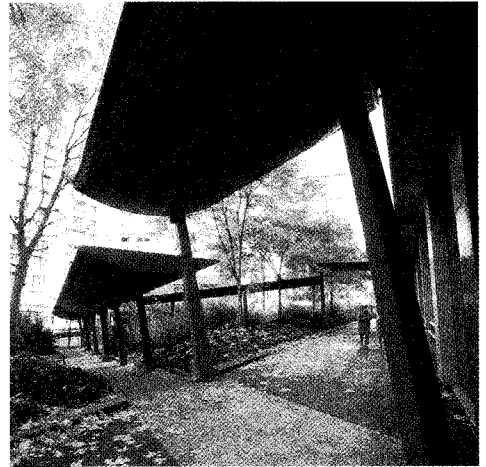
기존 건물의 완성시기 : 1964년

시공기간 : 92년 4월~93년 7월, 93년 9월~

94년 12월(기존 건물의 개·보수)

공사비 : 1억 3,947만프랑(기존 건물의 개·

보수비와 신설 등의 건설비 합계)



기존의 고층동과 신설된 2개동의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만든 지붕이 설치된 통로.



부지의 동쪽과 마주한 도로에서 본 신설된 동의 외관. 도로와 마주한 1층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섰다.